

복수화신 송혜교 치정멜로 고현정 강철여인 이보영

송혜교, 5년 만에 김은숙 작가 ‘더 글로리’ 재회
고현정, ‘너를 닮은 사람’서 치정과 배신 그려
이보영, 백미경 작가 ‘마인’서 재벌가 며느리



송혜교, 고현정, 이보영(왼쪽부터)이 안방극장에서 다시 한 번 저력을 과시한다. 각각 새 드라마 ‘마인’, ‘너를 닮은 사람’, ‘마인’을 통해 시청자를 만난다.

‘흥행 권’들이 돌아온다. 안방극장에서 남다른 영향력을 과시해온 송혜교, 고현정, 이보영이 저마다 ‘스타 작가’들과 손잡고 연기 무대에 복귀한다. 주연 드라마에서 복수, 치정, 배신 등 강렬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꾀할 기세다. 그동안 선보였던 멜로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겠다는 각오다. 이들의 활약으로 안방극장의 여성 서사도 한층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송혜교…김은숙 작가와 5년 만 재회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로 호흡을 맞춘 김은숙 작가와 다시 손잡는다. 8부작 드라마 ‘더 글로리’다. tvN ‘비밀의 숲’ 등을 만든 안길호 PD가 연출한다.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들이 한 데 모인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된 후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담는다. 최대 시청 포인트 역시 송혜교의 도전이다.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저절함에 사투진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한다.

제작진은 최근 진행 중인 주·조연 캐스팅을 마무리하는 대로 촬영에 나선다. 소재 자체가 자칫 ‘스포일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상세한 내용이나 설정 등을 모

●고현정…한 여자의 처절한 욕망

여름에 방영할 JTBC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 부잣집 남자와 결혼해 성공한 화가 역이다. 30대와 40대에 걸친 주인공의 격변이 드라마의 핵심으로, 기획단계에서 일찌감치 캐스팅됐다. ‘여왕의 교실’ ‘대물’ 등을 통해 선보인 묵직한 연기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는 의지이다.

함께 출연하는 신현빈과 함께 서로를 향한 질투와 부러움, 치정과 배신으로 이야기를 촘촘히 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현빈도 최근 안방극장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이야기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2013년 KBS 2TV ‘비밀’ 등으로 섬세한 감성을 자랑한 유보라 작가가 집필한다.

●이보영…김서형에 옥자연까지 ‘우먼 어벤저스’

5월부터 방송하는 tvN ‘마인’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JTBC ‘힘센여자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 등을 쓴 백미경 작가와 의기투합한다.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벌가 여성들의 변화를 담아낸다.

연출자와 주요 캐릭터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KBS 2TV ‘쌈 마이 웨이’ 등의 이나정 PD가 연출한다. 김서형, 옥자연, 예수정 등 강한 개성의 배우들이 합류했다. 재벌가의 며느리 역을 맡은 이보영이 그 구심점으로, tvN ‘마더’ 등에서 꾸준히 연기해온 주제적인 여성 캐릭터를 그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실 틈 없는 인턴 최우식 ‘윤스테이’ 최대 수혜자



tvN ‘윤스테이’

최우식의 재발견이다. 영화 ‘기생충’으로 연기자로써 역량을 뽐낸 데 이어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윤스테이’를 통해 친근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8일 첫 방송부터 화제몰이에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최우식은 외국인 손님으로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집의 벨보이 겸 서버로 활약 중이다. ‘대표’ 윤여정, ‘부사장’ 이서진, ‘실장’ 정유미, ‘과장’ 박서준 등을 도와 민박집 안팎을 관리한다. 가장 낮은 직급인 ‘인턴’이지만, 손님의 집을 옮기고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 다양한 일을 부지런히 해낸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친화력이 프로그램과 특히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0대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10여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발휘해 미국, 우크라이나, 네팔 등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손님들과 막힘 없이 소통한다. 윤여정과 이서진이 “어쩔 저렇게 잘 하냐” “타고 났다”며 감탄할 만큼 성실하고 살가운 성격이 장점이다.

출연진 및 제작진과 ‘찰떡 호흡’으로도 빛을 댔다. 정유미, 박서준 등과는 연예계 소문난 ‘절친’이고, 연출자 나영석 PD와는 작년 여름 예능프로그램 ‘여름방학’으로 한 차례 만났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나 PD가 이를 토대로 보낸 러브콜에 응하면서 ‘최 인턴’으로 거듭났다.

덕분에 프로그램은 8.2%(닐슨코리아)의 높은 시청률로 출발했다. 촬영지인 전남 구례의 한옥 상산재부터 이들이 내놓은 떡갈비 등 음식까지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한편 최우식은 올해 스크린에서도 활약을 펼칠 계획이다. 주연에 촬영을 마친 영화 ‘경관의 피’ ‘원터랜트’ 등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동준·남보라, 사랑과 희망을 빛다 각각 영화 ‘간이역’ ‘크루아상’서 파티세 역할



‘간이역’ 김동준

‘크루아상’ 남보라

달콤한 빵 한 조각과 진한 커피 향기에 청춘의 꿈과 사랑을 담아내는 두 편의 영화가 나란히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제빵사를 의미하는 파티세라는 직업을 소재 삼아 20대의 풋풋한 로맨스와 희망을 그리는 무대다. 이달 개봉하는 영화 ‘간이역’(감독 김정민·제작 유한회사 간이역)과 21일로 공개 일정을 확정된 ‘크루아상’(감독 조성규·제작 와우, 와이제이글로벌그룹)이다. 아이돌 출신 김동준과 남보라가 파티세 역할을 맡아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간이역’의 김동준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파티세이다. 7년 만에 첫사랑(김재경)을 다시 만나면서 순애보를 펼친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첫사랑을 지켜주려는 그는 자

신의 분야에서 제법 성공한 파티세로서 파스한 이야기를 내려놓는다.

남보라 역시 동네 빵집 주인이자 파티세로서 관객을 만난다. 실업의 설움을 지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한상혁)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제빵의 매력을 안겨준다. 한때 청년이 꿈꾸던 직업을 지녔던

남보라는 자신만의 미래를 일궈가며 관객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따스한 감성을 안긴다.

이들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아직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청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오랜 경제 침체 속에서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또래 관객들에게 삶과 희망의 숙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기세다.

두 젊은 연기자들에게도 무르익어가는 연기의 매력을 안겨 주는 무대가 될 듯하다.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으로 영화 ‘회사원’, 드라마 ‘보좌관’ 등을 통해 연기의 세계에 들어선 김동준은 좀 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쌓아가는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톡톡 튀는 감성을 드러내는 남보라도 우뚝한 주연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다원24 검색

장이 이상해?

몸에 좋은 유산균,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상아 신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먹습니다.
건강한 중, 장년을 위한 상아 유산균 많이 드세요.

방송인 이상해

출시기념! 지금구매하시면 상아유산균 1개월분 추가 증정, 단 3일간!

80년 전통 SANG 상아제약

新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상아 신프로바이오틱스란? 제 3세대 유산균으로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혼합된 상아제약의 새로운 유산균입니다. (12종 혼합유산균에 당화균, 황국균, 레몬분말 추가 함유.)

왜? 제3세대 상아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인가?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 프락토 올리고당이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식물성의 성분으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박테리아를 프로바이오틱스와 하며 상아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주요 성분입니다.

상아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하세요

더욱 강력해진 2021년 상아제약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상아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12종 혼합유산균과 효모균, 황국균, 당화균(고초균)을 유익 미생물들이 다량으로 함유된 제품으로 장내 미생물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복원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의 세균까지 잡아먹고 항아 우수에 섭취가 편합니다.)

상아제약 유산균의 역사를 새로 쓰다
2021 신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2종 혼합유산균을 1포에 담아 더욱 새로워진 상아신프로바이오틱스

SANG 상아제약
기술혁신대상 수상기념 특별가
1세트 1박스(3개월분) 99,600원 ▶▶▶

파격할인가 : 49,800원

2세트 2박스(6개월분) + 1세트(3개월분 다)
총 9개월분 199,600원 ▶▶▶ : 99,800원

문의 1599-3825

농협 : 301-0282-1060-21 (주)다원소평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가능(약매비 3,000원 소비자 부담)